

동정굴의 관광지 개발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Propriety of Tourist - Resort Development of Donggong - Cave

유영준³⁾

국문 초록

여러 관광자원 중에서도 동굴은 지하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며, 일반 관광자원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고 견인력이 큰 자원이어서, 최근 들어 동굴은 레크리에이션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동굴 중에서 강원도 영월군 서면에 위치한 동정굴은 도로상에 입지하고 있으며, 부근에 자연풍치자원 이외에도 사적자원, 산업자원 등이 산재하고 있어 관광 개발에 유리한 입지로 판단된다.

특히 평창강의 심한 곡류, 우뚝 솟은 하식에 등의 하천지형과 지표면의 카르스트 지형 및 동굴 내부의 2차 생성물들은 동정굴을 지형지물의 전시장이며 자연학습의 현장이라는 특성을 지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정굴 지역을 주변의 각종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발해야 하겠다.

I. 서론

지하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은 이 점 때문에 관광자원 중에서도 특이하며, 일반 관광자원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고 견인력이 큰 관광자원이다. 우리 나라에 있는 동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석회동굴이며, 석회암 지형이라는 특성 상 강원도 지역에 동굴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동정굴은 강원도 영월군 서면 옹정리에 있다. 이 동굴은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새롭게 발견된 천연동굴로 동굴 입구가 남한강 유역 하식애의 절벽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에야 발견되었고, 또한 그 위치의 부적합성 때문에 개발계획 수

* 한국생활환경연구원 연구실장

립이 늦어진 동굴이다.

그로 인해 동정굴에 대한 선행연구(홍현철·김추윤, 1992)도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미 연구(권동희·홍충렬, 1995; 홍충렬, 1995; 홍현철, 1995; 홍시환·변대준, 1994; 홍시환, 1987; 정태진, 1987; 홍시환, 1987)되어 개발된 동굴들에 비해 새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동정굴의 관광지로서의 개발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동굴 개발의 필요성

본 연구지역은 내륙산간오지인 영월지역에서 서쪽의 제천지역으로 나아가는 현관 구실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영월지역은 원래부터 주민의 生活民度가 낮을 뿐만 아니라 광산업과 산지농업에 의존해 왔던 지역이므로 현대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월지역은 해마다 이농현상이 두드러져 인구는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루 속히 안정된 정착생활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즉, 지금까지 석탄광업에 의존해 왔던 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생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항구적인 개발계획으로 사계절 휴양객이 찾아들 수 있는 휴양단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월지역은 산세가 좋고 물이 맑으며, 더구나 강줄기는 크게 굽이쳐 흐르면서 널따란 하안단구를 발달시키고 있으므로 이 단구면의 개발은 기대할 만한 자연환경이라고 하겠다.

본 지역은 남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바 평창강과 주천강이 합류하면서 크게 곡류 하는 지역이므로 토지가 기름지고 자연풍치환경이 수려하다. 또한 지질구조가 석회암 층으로 되고 있어서 지표면은 이른바 석회암지역에서 널리 발달하는 카르스트 지형의 모식적 지형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 지형지질은 물론이고 자연을 관찰하는데 매우 유리하고 편리한 지역으로 되고 있어 개발 후보지로 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동정굴이 배태되고 있는 지표면지대가 자연학습원이나 국민휴양지로 개발되는 경우 이 동굴은 천연적인 자연동굴 박물관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III. 동굴 개발계획의 수립 방침

본 지역은 남한강 상류인 평창강이 개석한 퇴적평야이므로 자연학습을 주로 하는 자연학습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민경제발전에 부응하여 관광 및 자연관찰의 학습현장으로서, 민자로 개발계획을 세워 주민과 학생들의 휴양단지로 개발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터이므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해야겠다. 가능한 한 민자를 유치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국민휴양단지 또는 자연학습원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계획에서는 동정굴 내부만으로 국한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른 바 단지 내의 부대시설은 국민휴양지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는 아직 동굴에 관한 자료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터이므로 이 동정굴은 동굴 그 자체가 자료관 또는 박물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표지역에 자연사 박물관이나 동굴 박물관이 개발될 것에 대비하여 동굴 내부가 그대로 동굴 자료관으로 개발·이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동굴 박물관 또는 동굴 자료관으로서의 기본 전시는 자연생성물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한다. 박물관 또는 자료관의 부대시설 또는 편의 시설은 모두 동굴지역 지표면에 계획되고 있는 국민휴양지 계획에 의

거하되 이들을 이용토록 계획을 수립한다.

IV. 동굴의 개발 방향 및 대상지역

1. 동굴의 개발 방향

동굴의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천연동굴 속에서 동굴에 관한 모든 것을 관찰 학습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자료관으로 계획한다.

둘째, 대자연을 대상으로 한 국민휴양단지 안에 천연동굴의 지형지물 등을 그대로 관찰·감상하면서 대자연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박물관으로 계획한다.

셋째, 국민휴양단지 내에 지구과학의 자연관찰학습의 현장으로 개발 계획한다.

넷째, 천연동굴의 탐사관찰을 통하여 대자연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전당으로 계획한다.

다섯째, 우리 나라 내륙산간오지인 영서지방과 서안인구조밀지역을 연계시켜 주는 동굴 자료관으로 계획한다.

2. 동굴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본 계획의 대상은 강원도 영월군 서면 옹정리에 있는 동정굴 내부 지역이다. 동정굴의 지표지역은 국민휴양지로 개발계획이 따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개발계획에서는 제외한다.

V. 동굴지물의 관광적 특성

동정굴에 있는 지형 및 지물 분포의 관광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동정굴은 성인상 석회동굴이며, 형태는 수평굴에 속한다. 동굴 내부에는 2개의 수중동굴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북쪽 수중동굴에서 동굴 입구의 수중 방향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동굴 내부는 크게 3개의 광장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데, 동굴 입구부의 제1 광장에서 제2 광장과 제3 광장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선회하여 제1 광장으로 돌아 나오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지형지물은 주로 제1 광장의 남동쪽에 발달하는 동굴에 분포하고 있으며, 제1 광장과 동굴 입구 부분은 그 발달이 미약하다.

2차 생성물의 특색은 주로 유석, 석순, 커튼 종유석이 주종을 이루어 발달하고 있으며, 동굴 천정에는 벨홀의 발달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관적인 면에서는 커튼 종유와 유석, 베이컨 등이 방해석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화려한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동굴 바닥에는 홍점토에 의한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바닥이 미끄럽다.

종유관이 동굴 내부 깊은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성장 중인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낙석의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다(그림 1 참조).

VI. 관광개발의 타당성 조건

1. 관광 입지

본 동굴은 우리 나라 중부지방의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계시키는 중간내륙산지에 입지하며, 수도권과 동부내륙산간오지와 의 중간점에 해당한다. 또한 태백산맥 서사면의 자연풍치자원이 수려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며, 내륙산지와 대동맥인 남한강 수계에 임한 강변 연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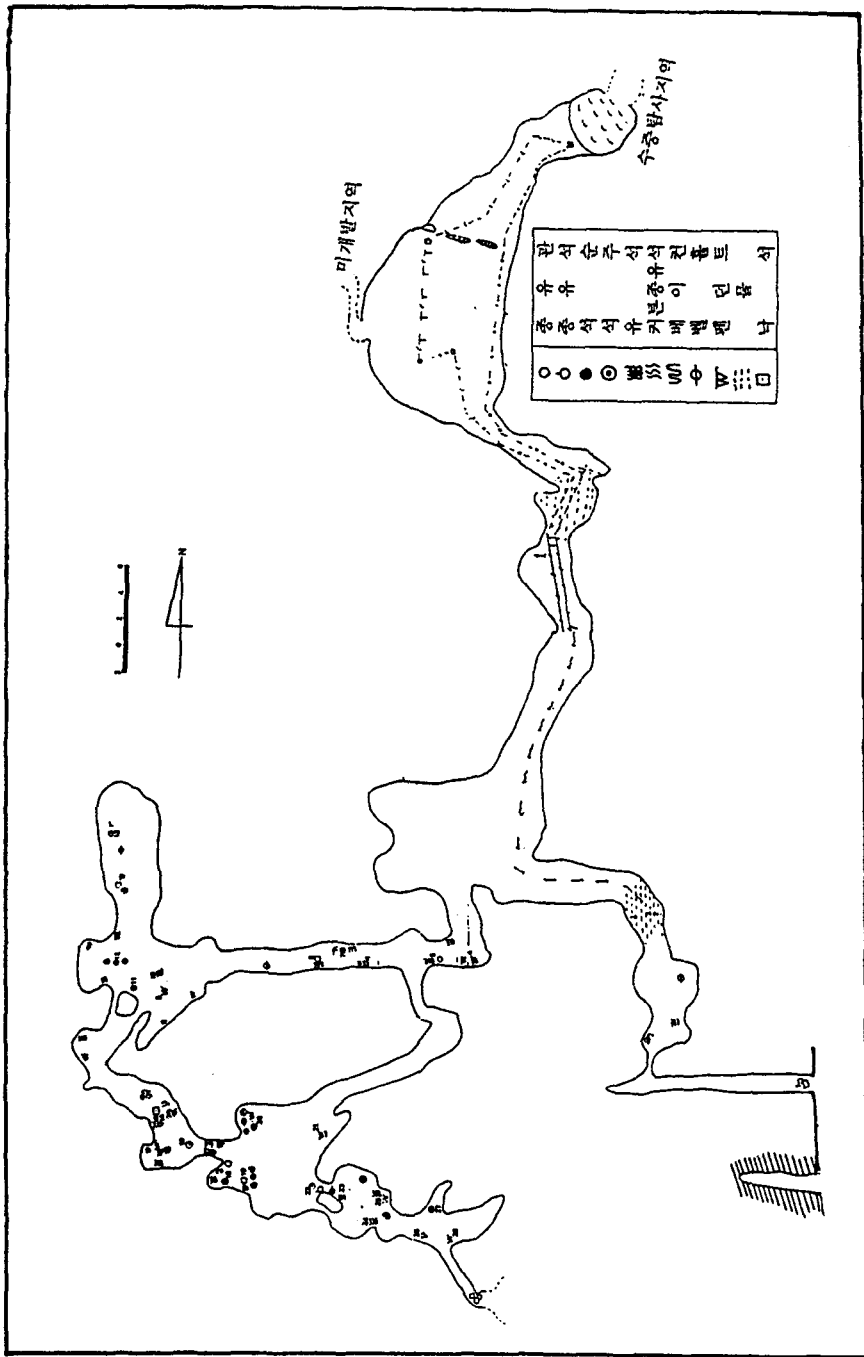


그림 1 동정굴 지형 개관도

구를 끼고 있는 하식애에 입지하고 있다.

한편 거리위치 면에서는 수도권에 가장 근접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권과 자연풍치권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도로상에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부근에는 자연풍치자원 이외에도 사적자원, 산업자원도 산재하고 있어 관광개발에 유리한 입지로 판단된다.

2. 관광자원의 분포

영월지역에는 수많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하여 지정문화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이른바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표 1 참조). 더구나 이 부근은 평창강의 수계가 협준한 하식애를 발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세도 수려한 지역이다. 이 동굴지역 부근에는 이 밖에도 지표면의 카르스트 지형 등 학술문화자원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3. 관광객 추세

관광객의 증가는 그 지역경제발전과 따르는 국민소득 증가, 그리고 주민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관광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관광객 추정은 일반적인 개별방문 패턴에 의한 현지조사를 기초로 하는 바 최근의 탐방 수는 약 20만에 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특이한 자연동굴 박물관이므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많은 증가가 기대된다. 최근까지의 관광객 증가율은 매년 15~20%가 되고 있다.

표 1 관광 개발지의 문화재 현황

구분	명 칭	지 정 번 호	소 재 지	
			거리(km)	주 소
국 가 지 정 문 화 재	징효대사 보인탑비	보 물 612호	40	수주면 법흥 2리
	장 룡	사 적 196호	1	영월읍 영흥 12리
	고 씨 동 굴	천연기념물 219호	12	하동면 진별리
	은 행 나 무	천연기념물 76호	0.7	영월읍 하송 2리
	관 음 송	천연기념물 349호	2	남면 광주리 67 - 1
도 지 정 문 화 재	자 규 루 관 풍 헌	유 형 26호	0.5	영월읍 영흥 5리
	창 절 사	유 형 27호	0.5	영월읍 영흥 14리
	영 모 전	유 형 56호	0.5	영월읍 영흥 10리
	영 월 선 원 지	기 념 물 6호	40	수주면 법흥 5리
	청 랭 포	기 념 물 5호	3	남면 광천리
	용 담 굴	기 념 물 23호	10	하동면 진별리
	대 야 굴	기 념 물 32호	14	하동면 대야리
	연 하 굴	기 념 물 31호	4	영월읍 연하 1리
	징 효 대 사 부 도	유 형 72호	40	수주면 법흥 2리
	법 흥 사 부 도	유 형 73호	40	수주면 법흥 2리
재	마 애 여 래 좌 상	유 형 74호	28	수주면 법흥 3리
	향 교	유 형 100호	0.5	영월읍 영흥 7리
	법 흥 사 석 분	유 형 109호	40	수주면 법흥 2리

VII. 상위계획과의 검토

1. 국토종합개발계획

본 계획구역은 국토종합 개발계획 상 한강 유역권에 해당하며, 8중 권으로는 태백권에 속한다.

태백중권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은 산지농업 또는 어업 및 관광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전형적인 주 기능은 동해안 어업 및 관광으로, 이용기반시설인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표 2 국토종합개발계획상 권역 구분과 관광지 개발 계획

4대권	8중권	주 기능	관광자원 개발 주요 대상지
한 강 유역계	수도권	중추기능	북한산성, 남한산성, 사적지
	태백권	자원·산업	춘천지방 5대호, 설악산
금 강 유역계	충청권	농업·공업	계룡산, 속리산, 온양, 대천 및 문화재 보전지
	전주권	농업·공업	내장산, 변산 반도, 무주구천동
낙동강 유역계	대구권	공업·농업	경주, 동해안 일대
	부산권	상업·공업	한려 해상, 가야산, 해인사 등 문화재 보전
영산강 유역계	광주권	농업·공업	지리산, 백양사, 대흥사, 장성호, 영산호, 무등산
	제주권	관광·상업	한리산

자료 : 건설교통부

2. 국민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 상의 태백권

1) 이용권 및 개발 소권

본 계획의 대상지는 전국 관광 8대 이용권 중 태백권에 속하며, 태백이용권 중 오대산 개발소권에 해당한다.

산세가 수려한 천혜의 자연자원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태백권은 다시 4개 소권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소권은 설악산과 오대산, 경포해수욕장 등 산악과 해안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봄과 가을에는 산으로, 여름철에는 바닷가로 전국 각지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2) 태백권의 개발 구상

산악관광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속초, 인제, 강릉, 영월 등 산악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등산로, 야영장, 스키장 등을 개발한다. 동해안의 경관 및 해수욕장을 영남권과 연계 개발하여 하계 휴양지로서 대규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산악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이용 코스를 개발하여 청소년 수련 및 조국순례 코스로 개발한다. 따라서 영월,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관광권을 개발한다.

3. 강원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강원도를 춘천권, 설악권, 강릉권, 원주권, 동해권 등의 5개 관광권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지역은 강릉 관광권에 속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강원도 5대 관광권도

강릉 관광권 개발 방향은 강릉시의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민속촌을 건립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고, 오대산과 용평·대관령 스키장을 연결·개발하며 다계절형 관광지화하는 것이다.

주요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으로는 월정사의 경우 스키장과 연결하

여 전천후 관광지화하고, 소금강은 청소년 휴양위락공간으로 조성하며, 경포대는 국제적 규모의 위락문화시설을 배치하고, 주문진과 남해 및 옥계해수욕장은 하계 종합휴양지로 개발하며, 용평스키장은 동절기 종합휴양지로 활용하고, 강릉 시내에는 박물관을 건립하며 관광거리를 조성하도록 한다.

VIII. 개발의 타당성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자연학습장, 즉 자연동굴 박물관으로의 동굴 개발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동굴지역의 지표면 일대는 용식지형의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의 모식적인 지형으로 지형학, 지질학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연학습의 현장이다.

특히 수많은 돌리네, 우발라를 비롯한 폴리에 등의 카렌 필드가 전개되고 있고, 그 地面 下에 이 동굴이 발달되고 있으므로 이 지표면과 더불어 석회동굴의 형성과정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지역이다.

그리고 평창강의 물줄기가 심한 곡류를 이루면서 이 동굴이 있는 서쪽 측면에 대규모의 하식애를 발달시키고 있는데, 이 자유사행천의 곡류 모습, 우뚝 솟은 하식애 등의 경관도 하천지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본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동굴 내부에는 2차 생성물인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을 위시하여 이른바 동굴 퇴적물에 해당되는 대부분이 발달·성장하고 있으므로 참으로 석회동굴 지형지물들의 종합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동굴 통로는 30° 내외의 경사지면이 많으므로 스위치 백 (switch back)식의 통로시설이 불가피하지만 차분하게 동굴의 지형지물을 관찰하기에 편한 동굴이다.

또한 동굴의 바닥 면에는 평창강의 수류가 동굴 속으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평창강 수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동굴 내부 바닥 면의 호수 수면도 좌우될 것이 예측된다. 이 밖에 동굴이 있는 옹정리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근접된 지리적 위치에 해당하는 곳이므로, 도로교통의 확충과 지표면 지역의 개발에 따라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연학습의 현장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굴 자체를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자연동굴 박물관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IX. 개발의 기대효과

관광산업은 제4차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주민소득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다.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는 영월 서부에 새로운 유형의 동굴이 발견된 것은 앞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굴을 중심으로 자연과학 학습원이 생겨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또 국가시책인 과학입국의 정책에도 부합될 것이다. 또한 관광지로 개발되면 유입인구의 증가로 지방도시의 총인구가 증가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방치된 자연자원을 잘 개발·활용하여 휴식 내지는 학습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향토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주민들이 우리 고장에도 이런 훌륭한 휴게 공간이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되고 자기 지역사회에 애향심을 갖게 되어 인구 유출현상이 줄어들게 된다.

북쪽으로는 설악산, 소금강, 송지호, 화진포, 경포대 등지의 관광지와 남쪽의 죽서루, 성류굴, 백암온천, 불영사 등지를 수직 축으로 연

결해 주는 가운데 지점에 본 동굴이 입지하고 있어 각종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X. 결론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이 동정굴은 그 동굴 내부의 지형이 화려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입지환경이 동굴 표면인 지표면은 평탄한 카르스트 지형을 이루고 있고, 또한 강 절벽 밑에는 넓이 50m에 달하는 강변이 전개되고 있어, 이 남한강 강변의 경관 그리고 지표면의 카르스트 지형 등으로 보아 그 개발 전망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참고문헌

- 김원인, 1995, 「관광학원론」, 학문사 : 서울.
- 권동희·홍충렬, 1995, “태백시 용연동굴의 개발 환경,” 「동굴」, 제42호.
- 김동진, 1987, “산호동굴 개발의 지리적 배경,” 「동굴」, 제16호.
- 이근, 1996 「신관광자원론」, 학문사 : 서울.
- 정태진, 1990, “일본의 동굴 관리 실태 보고,” 「동굴」, 제23호.
- 한주성, 1992. 「인간과 환경 - 지리학적 접근」, 교학연구사 : 서울.
- 홍시환, 1978, “동굴의 이용에 관한 연구,” 「동굴」, 제3호.
- 홍시환, 1987, “우리 나라 주요 관광동굴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굴」, 제15호.
- 홍시환, 1990, “정선 화암동굴 개발 타당성 연구,” 「동굴」, 제23호.
- 홍시환·변대준, 1994, “여량 산호동굴의 개발 타당성 연구,” 「동굴」, 제39호.

동정굴의 관광지 개발 타당성 연구

홍충렬, 1995, “관광지로서의 천곡동굴 연구,” 「동굴」, 제41호.

홍현철, 1995, “은달굴의 개발 타당성 연구,” 「동굴」, 제44호.

홍현철 · 김추윤, 1992, “동정굴의 학술적 가치와 특성 연구,” 「동굴」, 제29호.